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성 금요일 예배: 4 월 14 일(금) 저녁 8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 부활주일예배(4 월 16 일)는 PUMC, Iglesia Una Esperanza 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PCA(미국장로교) 한인동북노회가 4/18(화)에 있습니다.
- 웨체스터교회연합회 부활주일 새벽예배:  
일시: 4 월 16 일(주) 아침 6 시  
장소: 뉴욕한인제일교회(박효성 목사)  
500 S Broadway, Tarrytown, NY 10591

2017 년 4 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권순일 집사/시편 118:1-2, 14-24  
 이번 주 친교: 이미경/하영미 집사  
 다음 주 친교: 전교인(부활절)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에배순서

2017년 4월 9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151 장(통 138 장) 다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18:1-2,19-29 홍성철 집사

찬양(Choir) “주 걸으신 길 나 걸었네”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3:15-25 인도자

설교 (Sermon)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542 장(통 340 장) 다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3. 26. 주일설교 요약

한없는 은혜 (갈 3:26-29)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큰 나무와 작은 풀, 높은 산과 골짜기를 다 적시듯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울베 아래 묵었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은 자기 행위를 공로 삼을 때 저질렀던 판단과 원망을 이기게 합니다. 진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죄를 방관하는 불의 아닌가”라는 염려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유한한 사랑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인식함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신분 중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까지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신분과 혈통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격과 공로를 따지지 않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일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들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특권을 아십니까? 무슨 다른 인정을 더 받으려 합니까?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는 마음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고 누리고 있는지 살피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옷도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유니폼이 그 팀의 일원임을 보여주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옷은 또 남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린 속의 것을 감추려고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옷으로 감춰야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감추고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합니다. 우리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들로, 의인들로, 영광의 찬송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형편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하는 아들로 보십니다. 그게 내 행위로 됩니까? 위선으로 됩니까? 열심히 꾸민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별거벗어 죄가 다 드러났으나 오직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니까? 그렇다면 무슨 위선과 가장이 필요합니까?

혈통과 신분, 심지어는 남녀까지도 구별이 없는 연합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overwhelming generosity)과 그 자비만을 의지하는 겸손함만이 모든 구별을 넘어(humble solidarity)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별없는 사랑은 잘못을 눈감는 불의라서 못마땅할 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는 이방인 아닌 유대인인 것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인 것이, 여자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헛되고 초라한 자랑입니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며 형제로 여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절한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만큼,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큼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다. 내 이해와 지각을 넘어서는 믿음, 내 힘 닿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을 드립시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영광과 거룩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